



金井議政

제2016-3호

2016년 3월 2일(수)

의회사무국 ☎ 519-5501~5
http://council.geumjeong.go.kr/

열린의정 소통의정

금정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 기간 : 2016.2.12.(금)~2.18(목) ▶ 7일간
- 장소 : 의회 3층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회의실
- 참석 : 의원전원
- 안건
 -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
 -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2건



연번	의안명	제출일자	의결일자	의결내용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1.28	16.2.18	수정가결
2	창조 도시재생 대학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6.1.29	16.2.18	원안가결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1.29	16.2.18	수정가결

의정 일지

일시	내용	비고
2/1(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2/2(화) 10:00	2월 의장단 회의	의장
2/2(화) 10:30	2월 의원정례간담회	의원
2/2(화) 11:30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의원
2/3(수) 14:00	설날맞이 복지시설 및 금정경찰서 방문	의원
2/12(금) 11:00	제241회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원
2/15(월) 10:00	제241회 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	의원
2/16(화) 10:00	제241회 의회 임시회 조례안 검토	의원

일시	내용	비고
2/17(수) 10:00	제241회 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의원
2/18(목) 11:00	제24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2/19(금) ~2/27(토)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국외연수	의원
2/22(월) 16:30	2016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의원
2/23(화) 18: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정구협의회 정기회	의원
2/25(목) 19:00	금정구 생활체육회 정기총회	의원
2/29(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주요 의정 활동

2016. 2월 의원정례간담회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2016년 2월 2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정례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간주예산 편성 보고를 비롯하여 문화공보과장의 금정문화재단 발기인 총회 개최관련 보고, 일자리경제과장의 도시농업시범사업 시행관련 보고, 보건행정과장으로 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수립관련 보고 등 총4개 사업에 대해 상황보고를 받고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하였다.



■ 최봉환의원 부산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지난 2월 16일 부산광역시시의장협의회 주관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을 동구의회에서 개최하여 14개 구군에서 각 한 명씩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에서는 최봉환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부산광역시시의장협의회에서 부산시 기초의회의원 중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금정구의회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 격려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2월 3일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성품을 전달하였다. 방문시설은 관내 어려운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금정구 장애인근로작업장과 4개소를 선정하여 총 3백만원 상당의 쌀, 라면, 국수 등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의원 발의 조례 사항

①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김경윤 의원
(서1동,부곡1·4동-새누리당)외 5명
- 발의이유 및 주요 제정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증대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하여 도시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조례를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형성된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위탁 가능, 사용료·대부료 등 감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분 자유발언

◆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6.2.12.)



조준영의원

제목 : 아동친화도시 금정구, 유흥업소 호객행위 근절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설명절 가족 이웃과 더불어 잘 보내셨습니까?

서2, 서3, 금사동 더불어민주당 조준영의원입니다.

작년 하반기 금정구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구 행정력과 예산을 사회적 약자이면서 미래세대인 아동에게 배분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주민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더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실까요?

어제 밤 10시 경, 사복경찰 두 분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서동 부산은행 앞 유흥업소 호객행위 모습입니다. 이후 이들은 업소로 진입합니다. 채 5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유흥업소 호객을 위해 일명 “빠끼” 30~40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동친화도시의 상징적인 건물 유니세프 도서관과 직선거리로는 불과 500여m, 교육문화 예술특구 표방하며 만든 서동예술창작공간과는 불과 250여m 거리에 있습니다.

2015년 7월 기준, 금정구 유흥·단란주점은 총 253개소, 이 중 47%인 119개가 서동에 밀집해 있습니다. 총 105개소의 금정구 숙박업소 중 38%인 38개소가 서동에 밀집해 있습니다. 유흥가와 인접한 주택가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통학이나 출퇴근하기 위해 이곳을 지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빠끼 당하면 참 찝찝하다. 그래서 남자라도 내가 피해 다닌다. 나는 저녁 8시 넘으면 불쾌해서 이 길 못 다닌다.”

“서동 금사동에서 애들 다 키우고 시집 장가 다 보냈는데, 여기 사는 건 난 반대한다.”

“나는 아줌마라 이제 무덤덤하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육을 하겠나? 빠끼가 판치는 동네에서 살게 해서 부모로서 참 미안하다.”

이런 말들은 일부 주민들의 생각이 아니라, 유흥가 인접 주택가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실제로 아동심리나 복지 관련 연구를 봐도, 유해 환경 접촉 경험과 비행 가능성이 밀접한 상관이 있고, 지역사회 유흥주점 수와 청소년 범죄 가능성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통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준수 사항에는 “손님을 꺾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흥업소의 호객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혹은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경찰과 구청이 실시한 유흥업소, 단란주점 지도단속 결과 세부내역 중에서 호객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를 눈여겨봤습니다.

2013년에는 9건, 2014년 3건, 2015년 1건으로 그리고 호객행위는 성행하는데, 단속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속의지가 약화됐거나, 단속을 피해가는 방식이 교묘해졌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강력한 단속의지와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관악·도봉·부산 사상 등 많은 구에서 호객행위 근절에 주력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구청, 경찰,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유해업소 근절 T/F팀을 만들어서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로 역할을 배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소 전체를 돌며 구청의 유흥업소 불법행위 근절 방침과 업종전환 시 지원 사항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건물주에게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도록 설득도 합니다.

저도 우리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의 인력의 한계 그리고 노고, 호객행위 증거 확보가 어렵고 호객행위자와 영업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객행위 근절에 성과를 보이는 자치구의 사례에서 배울 것은, 강력한 “근절 의지”와 주민운동으로의 “확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동 유흥업소 호객행위 근절에 대한 구청장님의 더 강력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둘째, 구청의 아동·청소년·여성 관련위원회, 식품위생감시원, 음식관련 직능단체, 학부모, 경찰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부터 개최해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풀어내야 하는 과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셋째, 서울 강북구 같이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합동 단속 T/F팀을 구성해 이들과 1년 동안은 민간, 구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봅시다.

넷째, 다음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세운 “아동친화 도시 금정을 위한 서동 유흥업소 호객행위 근절 실행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제안 드립니다. 저도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금정을 위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구지만 사상구 환경위생과 직원이 유흥업소 불법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시다가 편찮으신데 빠른 쾌차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2.18.)



박종성의원

제목 : 장전지역 ‘여자중학교’ 문제, 온천4구역 재개발에서 풀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성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연말 부산시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브니엘고등학교로 대표되어지는 정선학원까지 시내버스를 노선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지난 4년간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1800여명에 이르는 서명을 해주셨던 많은 관계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해주신 박성명 시의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앞으로 이 노선이 상현마을까지 연장이 되어 회동수원지 일대의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장전2동을 중심으로 지역현안이 되고 있는 여자중학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전동 지역은 최근 대단지 아파트의 건설로 인구의 집중적인 유입이 있는 지역으로 특히 주민들께서 교육환경의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장전중학교 한곳으로 이마저도 과거 재개발 이전의 수요를 예측해 지은 탓인지, 교실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진학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자중학교가 없는 지역적 특성상 부곡중학교나 금양중학교, 혹은 부곡여중으로 등하교를 하는데 장전2동을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없고, 하교시 대학로를 지나와야 하는 관계로 많은 학부모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실제로 자녀가 여중을 진학하는 시기가 되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이 지역의 여자 중학교 신설을 호소하고, 교육청의 담당자와도 만나서 여러 차례 의논을 하였습시다만, 예산 부족과 학교부지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인근 온천4구역 재개발구역에 학교 부지를 마련해줄 것을 동래교육지원청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약 4300여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단지로서 인구 유입만 대략 1만여명이상이 입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단지에 학교부지가 없습니다. 장전2동만 하더라도 금정산 sk아파트와 벽산블루밍 아파트 단지가 3300여 세대가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빛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마련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래구청과 동래교육지원청의 공문에 따르면 이 거대 단지의 학생들 수용 계획은 온천초등학교와 금정초등학교에 교실 22개를 증축해서 기부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생은 인근 부곡중, 장전중, 금양중, 부곡여중, 동래중, 내성중, 온천중, 유락여중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장전2동에서조차 등하교가 어렵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온천4구역 학생들까지 동일하게 배치한다는 계획에 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청의 방침이 신규학교의 증설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책적 목표라는 것도 현장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민원을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지금 동래교육지원청의 계획대로 이 지역의 교육환경이 정착된다면 몇 년 후 수많은 대규모 항의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서, 지금 재개발 사업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둘째치더라도 이 지역에 온천4구역을 제외하면 정말 학교 부지를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초기인 이때에 재개발조합을 설득해서 시급한 여자중학교의 신설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016년 5월30일까지 교실증축 기부협약이 완료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이 지역의 여자중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청 재개발 담당부서에서는 저의 이런 우려와 제안을 동래교육지원청과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에 전달하고 향후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관련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게 구성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총선이후 이 문제를 이 지역의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으로 인식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론화하는 정치적 작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여건을 주려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자라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장전동 지역의 여자

중학교를 다니는 우리들의 소중한 딸들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